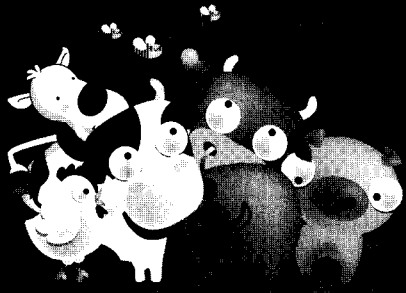


News



Hanwoo News 한우소식

◎2008년 한우소식 결산 |

**美쇠고기 수입재개 '악재'... 품질 고급화로 대응
'한우의날' 제정 마케팅 강화...산지값 떨어져
'송아지생산안정제' 첫 발동**

● 2008년 한우산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 악재가 도사린 가운데서도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우의 품질 고급화, 위생·안전성 확보, 소비기반 안정화 등을 위해 농가는 물론 정부와 생산자 단체가 어느 때보다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한해였다.



▶11월 1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1회 '한우의 날' 기념식을 찾은 소비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맛있는 한우고기를 맛보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품질개선 노력 활발 | 한우의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올해는 크게 높아졌다.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따르면 1~11월까지 도축된 한우 가운데 54.4%가 육질 1등급 이상을 판정받았다. 지난해는 한우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50.9%였다.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의 한우 경락값 현황을 살펴보면 육질 최상등급인 1과 최하등급인 3등급간의 가격 차이는 지난해 5,947원에서 올해(1~11월)는 7,300원으로 벌어졌다. 이는 고급육을 생산할수록 농가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가들의 고급육 생산 의욕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비자들의 안전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한우를 사육,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한우 농가수도 12월8일 현재 1,500호를 넘어섰다. 게다가 사육단계에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해썹·HACCP) 인증을 받은 농가도 점점 늘어나 한우 품질 고급화와 위생·안전성을 높이는 등 한우산업에 고무적인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소비기반 확보위해 '한우의 날' |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11월1일을 '한우의 날' 로 제정한 것이 올해 한우 소비촉진과 관련해 가장 의미있는 사건이다. 이 행사에서는 서울과 전국 8개도시에서 30만명분의 한우고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식회와 함께 할인판매, 부대행사가 열려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게다가 한우 브랜드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돼 한우의 부가가치 증대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우의 유통과정에서 '거품' 이 많이 발생, 소비를 크게 늘리는 데 한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다.

▲안정세 찾아가는 소값 | 갈비를 포함한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자 산지한우값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를 뒷받침하듯 산지한우값(600kg 수소가 기준)은 연초 478만원 선에서 미 쇠고기 수입재개가 이뤄진 6월엔 356만원 선, 8월엔 344만원

선까지 떨어졌다. 송아지값도 크게 하락, 송아지생산 안정제가 발동됐다. 그러나 산지한우가격은 추석명절 이후 반등현상을 보이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이는 한우가격이 떨어지면 농가들이 홍수출하를 하던 과거와 달리 출하를 자제하는 등 성숙한 자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 오는 12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한우를 비롯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자 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소의 출생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는 과정의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이 제도는 악성 가축전염병 등 위생·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의 이동경로를 추적함으로써 신속하게 원인을 밝혀내고 회수 및 폐기 등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Dairy Farming News **낙농소식**

◎2008년 낙농소식 결산 |

원유값 인상 '한숨' 돌리고 육우값 하락 '한숨' 내쉬고...

※ 올해 낙농가들은 원유값 인상협상으로 시작해 젖소 송아지값 하락으로 한해를 마무리했다. 4년 만에 원유



▶ 낙농가와 유가공업계 등이 10여 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목장 원유 10당 가격이 704원으로 인상됐다. 올해 6월 17일 전국 낙농유우인 총결기대회에 참석한 낙농가들이 원유값 현실화를 요구하는 모습.

값이 인상돼 한숨 돌리는 듯했으나 거듭된 사료값 인상에 때문에 젖소 송아지값이 5만원대까지 폭락해 어려움을 겪었다. 2008년 낙농육우산업을 되돌아본다.

▲원유값 인상 | 지난해 연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사료값 부담으로 연초부터 원유값 인상을 주장한 낙농가들의 요구에 따라 3월부터 낙농진흥회에서 원유값 현실화 협상이 진행됐다. 생산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가공업계 그리고 낙농진흥회와 정부 관계자까지 참여, 10여차례 협상을 거쳐 원유값은 7월 18일 1ℓ당 584원에서 20.54%(120원) 오른 704원으로 인상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4년 만에 1ℓ당 120원 인상기로 한 원유값은 원유값이 오를 것을 우려한 소비자단체의 문제제기와 원유값 인상에 따른 소비감소, 그에 상응한 생산량 조절을 조건으로 내세운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의견이 엇갈려 1개월여가 지난 8월16일부터 적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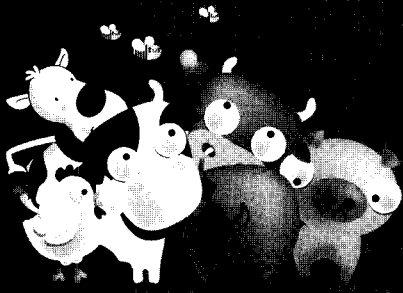
▲육우값 폭락 | 젖소 송아지(초유폐기)값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타결 이전인 3월과 11월을 비교하면 수송아지가 37만1,000원에서 5만9,000원, 암송아지는 25만4,000원에서 4만4,000원으로 떨어졌다. 각각 84.1%와 82.7%나 폭락했다.

이 같은 젖소 송아지값 폭락사태는 크게 오른 사료값과 육우값 하락이 원인. 사료값은 연초보다 50~80%는 인상됐으며 육우값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파로 실시된 원산지표시 단속의 간접피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낙농가들은 낙농과 폐려야 떨 수 없는 육우산업을 살리기 위해 한우 송아지만 적용하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참여, 육우 자조금사업 도입, 육우 브랜드 육성, 육우 전문매장 개장, 군납 확대 등을 주장했다.

▲낙농제도 개편 '아직 진행중' | 2002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지지부진한 낙농제도 개편 문제는 아직 진행중이다. 올해는 원유값 현실화 협상 이후 잉여원유 처등

News



가격제 개정과 원유값 결정 시스템 도입 및 원유값 산정체계 개선 등을 논의했으나 생산자와 정부, 유가공업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소비감소 등으로 생산량 조절이 필요하니 '70% 유대물량을 없애고 초과 원유값도 300원으로 낮추자'고 주장하나 낙농가들은 '4년 전 쿼터 회복'을 내세우고 있다. 사료값 등 생산비에 연동한 원유값 결정 시스템 도입은 생산자와 수요자의 산정 기준 문제가, 유단백을 원유값 산정체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문제도 사양관리 변경과 개량 문제까지 논의가 확대되면서 진전되지 못했다.

▲우유 소비감소, 대책없나? | 1인당 원유 소비량은 2002년 64.2kg 이후 2007년 63kg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통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증가하지는 못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낙농가들은 원유 소비 확대와 학교 우유급식 확대와 군급식 용량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올해 학교 우유급식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내년 예산안에 포함했으며, 학교급식에 우유를 포함토록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군급식 용량을 200ml에서 300ml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wine News 양돈소식

◎2008년 양돈소식 결산 |

높은 값 행진... 돈(豚)이 돈(錢)을 낳고

■ 양돈업계 역시 사료값 인상 등으로 폐업농가가 속출하는 등 어려움이 작지 않은 한해였다. 그러나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호재가 잇따르면서 돈가가 사상 최고가를 보여 다른 축종에 비해 어려움이 덜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선이다.

▲예상 밖 높은 가격 | 2006년부터 계속된 사료값 인상 등으로 생산성이 아주 높은 농가도 흑자를 내기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란 올해 초 예상과 달리 사상 초유의 높은 돼지값을 형성했다.

올해 초 예상은 지육 1kg에 3,000원 선, 3월까지는 이 같은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4월 이후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광우병 파동 등으로 급속한 오름세를 보여 4월에 처음으로 4,000원대에 진입한 후 한때 5,000원 선을 돌파했다.

이후 중국발 멜라민 파동과 다이옥신 파동 등으로 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재개에도 고돈가는 꺾이지 않고 있다. 돼지값이 금값이 된 한해였으나 이 같은 과실이 양돈업계의 노력보다는 때맞춰 터진 호재의 반사이익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고돈



가 속에 양돈농가들이 사료값 상승과 질병 청정화 등 문제점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산 돼지고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 양돈협회는 국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사업에 예상보다 많은 식당들이 지원을 해 120곳으로 대상업체를 늘렸다. 또 최근 80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는 국산 돼지고기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직까진 먼 생산성 향상과 수출 | 우리나라의 어미 돼지 연간 출하마릿수(MSY)는 13.4마리 수준으로 2002년 16마리로 최고치를 보인 이후 뚜렷한 성과가 없다. 이는 프랑스의 22.7마리는 물론 일본의 17.6마리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과 수출제개를 위해선 질병 청정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양돈관련 단체 등에서도 질병 청정화를 꾸준히 추진은 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양돈의 경우 품종이나 사료 등에 큰 차이가 없다. 결국 MSY가 떨어진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돼지를 구입하고 질병 청정화와 관리 등을 소홀히 하는 등 양돈농가의 주인의식이 부족하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Poultry News 양계소식

◎2008년 양계소식 결산 |

AI발생 '깜짝'... 방역고삐 '바짝'

11개 시·도서 닭·오리 등 813만마리 살처분

●올해 양계농가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농가들의 노력은 어느 해보다 돋보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예상을 갠 AI 발생 | 지난 4월1일 전북 김제에서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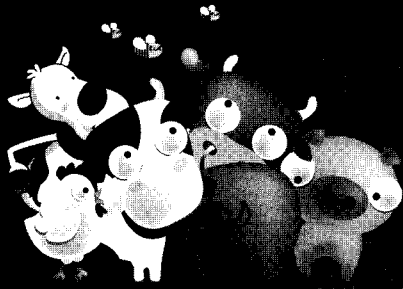
가 발생하자 양계농가는 물론 방역당국이 크게 긴장했다. AI가 올해는 예상을 깨고 봄철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올해 AI는 42일 동안 전국 11개 시·도(19개 시·군·구)에서 33건이 발생, 닭·오리 등 가금류 813만 8,000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모두 6,488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수역사무국(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 8월15일자로 다시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지만 이번 겨울에도 또다시 AI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11월~2월까지 AI특별방역에 나서던 것을 바꿔 연중 상시방역체계로 전환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닭값 강세, 달걀값은 기대 미흡 | 올해 산지육계값이 강세를 유지한 것이 그나마 다행스런 일로 해석된다. 지난해 산지육계값(1kg 기준)은 평균 1,118원이었으나 올해는 11월 말까지 평균 1,536원을 기록하고 있다. 12월 들어서도 산지육계값은 1,700원 이상을 유지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산란계 농가의 경우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달걀 과잉생산 영향으로 아직 불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형국이다. 산지달걀값(특란 10개 기준)은 지난해 평균 785원에서 올해는 1,000~1,100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크게 늘어나자 농가들이 자율감축에 나선 영향



▶올해 전국 11개 시·도(19개 시·군·구)에서 42일 동안 3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닭·오리 등 가금류 813만8,000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관련산업에 큰 피해를 끼쳤다.

News



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 **의무자조금 도입논의 활발** | 양계농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무자조금 논의를 활발히 펼쳤다. 지난 2005년 자조금 대의원까지 선출해놓고 관리위원과 감사 선출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는 등 자칫 좌초 위기로 몰렸던 육계의 의무자조금은 관리위원 선출 문제가 해결돼 내년에는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란계 역시 자조금 거출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정하지 못해 임의자조금에 머물다가 최근 거출기관이 도계장으로 정해짐에 따라 곧 의무자조금 도입의 첫번째 절차인 대의원선거에 들어가게 됐다.

▲ **계열업체와의 갈등 심각** | 올해는 육계농가와 계열업체간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현재 국내 육계농가의 80%가량이 계열업체의 위탁사육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계열업체와 계약을 맺고 병아리와 사료 등을 공급받아 사육에 나서 출하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불리한 계약조항 등으로 늘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면서 업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The Other Livest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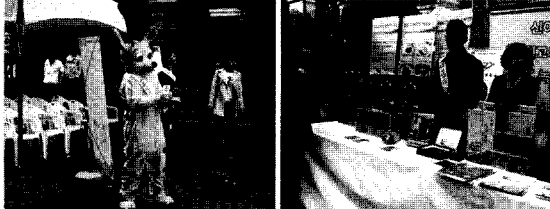
기타축산소식

◎ 2008년 기타 축산소식 결산 |

● **오리·양육농가 자구노력 활발** | 산지오리가격(3kg 기준)이 지난해는 평균 4,962원이었으나 올해는 11월까지 평균 5,361원을 기록했다. 이는 오리농가와 관련 업계가 자조금을 조성, 지하철에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광고를 하는 등 소비촉진 운동을 벌인 영향이 크다. 양육분야의 경우 올해 '사슴데이(4월3일)'를 제정한 것이 큰 성과다. 양육농가들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수입 녹용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토끼·꿀벌·타조농가역시 소·돼지·닭 등 주류가축에 비해 정책적인 배려를 덜 받고 있지만 우리 축산업의 한 축으로 우뚝 서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식과 경제침체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오리고기의 우수성과 홍보에 힘쓰고 있다.



▶ 농촌진흥청과 한국양육협회는 숫자 발음이 사슴과 비슷한 4월 3일을 사슴데일로 정하고 국산 녹용과 사슴고기 소비촉진 운동을 펼쳤다.